



원곡 · 취중천 · 진로미
(元曲 · 醉中天 · 前途美)

까치가 높은 나무에서 울고,
연잎이 맑은 호수에서 움직이네.
진상 자료가 복을 전하여,
천만 가에 날아드네.
선녀 양지가 소생하고,
세인이 구도 되어,
온 가족 좋은 진로가 있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계열 이야기

하늘이 내린 홍복

명혜 정기 간행물



- 우리 집 3대가 파룬따파의 은혜로 행복하다
- 마비된 지 7년 만에 나는 일어났다
- 천진 대폭발 재난을 모면한 비결



목록

CONTENTS



그림: 일가 3 대가 복을 받다

- | | | |
|---------------------|----|-------------------------|
| 서두 일문 | 1 | 사람을 구하여 20년을 더 살다 |
| 복강의 집 | 4 | 우리 집 3대가 파룬따파의 은혜로 행복하다 |
| 인간 신적 | 8 | 부친의 감동 |
| | 10 | “산송장” 살수록 젊어지다 |
| 해외 진상 | 12 | 파룬따파 흥전 세계 |
|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 | |
| | 14 | 마비된 지 7년 만에 나는 일어났다 |
| | 18 | 기사회생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니다 |
| 복성이 높이 비친다 | | |
| | 20 | 요독증 환자의 새로운 삶 |
| | 22 | 같은 불치병 부동한 운명 |
| 길언 구명 | 24 | 살면 살수록 활기차다 |
| | 26 | 바다에서 넋을 잃다 |
| 삼퇴 평안 | 28 | 천진 대폭발 재난을 모면한 비결 |
| 심신 정화 | 30 | 공군 대령의 “건강의 꿈” |
| 진상 명심 | 32 | 치밀하게 배치된 터러 음모 |

하점화면2—입을 막기 위해 그자리에서 류춘링을 죽였다

류춘링은 즉사했는데 CCTV는 “분신자살”의 불길에 타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디오 느린 화면 분석에서 사람들은: 류춘링은 현장에서 누군가 무거운 물건으로 때려 넘어졌고, 긴 물체가 머리 위로 튕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중에 목격자가: 소화기로 때렸고, 날아간 것은 소화기 손잡이였다고 말했다. (그림 2)

하점화면3—치명적인 추자

큰 화상 환자는 무균 병동에서 치료해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 복을 입은 엄격한 소독으로 감염 기회를 낮춘다. 반면 “CCTV 기자”는 격리된 오을 입지 않고,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했다. 또한 병균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건네고 말을 했는데 택액이 가져온 세균의 전염이 12살 어린 소녀 류스링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연기하는 것인가? (그림 3)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 그림 1, 2, 3



하점화면4—준비되어 있는 소화기

2004년 10월 16일 호주의《타임지》(The Age)는 CCTV “분신자살” 비디오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찰은 미처 몰랐는데 90초 안에 대량의 소방 장비를 가지고 화면에 나타났다.” 분명히 소화기 자재도 준비되어 있었다!

아직도 하다한 하점이 있는데 그 중 어느 것도 분신자살 사건의 조작을 입증한다. 이 거짓말들이 들통나자 사람들은 문뜩 천안문 “분신자살”은 연기만이 아니라 치밀하게 꾸민 테러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1년 8월 14일 국제 교육 발전조직 (IED)은 련 합국 회의에서: “우리의 조사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 당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중공 당국은 또 올해 1월 23일 천안문 광장에서의 분신자살 사건을 증거로 파룬궁을 포함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신자살 비디오 분석을 통해 옹근 사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출한 것이 분명하다.” 고 밝혔다. 확실한 증거에 직면한 중공 대표단은 말문이 막히고 변명이 없었다. 그 성명은 이미 련합국에 등록되었다.



치밀하게 배치된 테러 음모

섣달 그믐날 오후, 사람들은 모두 전통 명절의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누구도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 음모가 이미 화살이 시위에 올려지듯이 중국을 휩쓰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세계를 덮치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2001년 1월 23일 천안문 광장에서 다섯 사람이 분신자살하는 “돌발” 사건이 일어났다. 관영 신화 통신은 사건 발생 두시간에 불과한 속도로 전 세계에 영어 뉴스로 “다섯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분신자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 기자들이 북경 공안국과 공안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할 때, 뜻밖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공안이 정황을 모르고 아직 미처 조사하지 못했을 때, 신화 통신은 이미 전반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통상 신화 통신의 보도는 편마다 상부의 충충 비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왜 이번엔 이례적인가?

천안문 분신자살은 돌발적인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CCTV 《초점방단》이 방송한 “분신자살” 비디오 화면은 허점투성이로 “분신자살”은 중공이 사전에 계획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려고 연출한 사기극임을 폭로했다.

하점회면1—왕진동에 대한 촬영

첫 번째 분신자살 역을 맡은 왕진동의 몸에 붙은 불은 이미 꺼져 있고, 경찰은 그의 뒤에서 똑바로 서서 손에 소화 담요를 들고 왕진동이 구호를 다 외치고 나서야 그의 머리 위로 덮었는데 이것이 불을 끄는 것인가? 이것은 차려놓고 찍는 것이 아닌가? 화면의 왕진동의 옷은 불에 “타서” 너덜너덜 하지만,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를 가득 담은 비닐 음료병은 도리어 새것처럼 과랑다. 이 영화의 제작자 중 한 명인 리위창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비닐 음료병은 그들이 넣었고 화면은 사후 “보조 촬영”이라고 했다. 이 이른바 “보조 촬영”이란 사후의 설정 촬영이 아닌가? (그림 1)



고대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몸을 튼튼히 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익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덕행”을 중요시 하였다. 옛사람들은 덕을 쌓고 선을 행하여 장수한다는 것을 믿었다. 이러한 실제 사례는 사서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 현대에도 이런 진실한 사실이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중국 공산당에 의해 봉살 당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을 구해 20년을 더 살다

문/허난(何楠)

선악에 인과응보가 따르는 것은 천 리이다, 이것은 생전에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셨을 때, 마침 나의 사업이 최고조에 이르렀기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루는 회의 중간의 틈을 타서 부모님 댁에 들렀다.

당시 아버지는 큰 병이 방금 나아 대문 밖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나는 작은 걸상을 들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의 얼굴 혈색이 아주 좋은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다. 앉자마자 지나가던 관상쟁이가 높은 소리로 “허, 이 늙은이는 안색이 좋아요. 그런데 방금 큰 병을 앓으셨죠? 팬찮아요, 팬찮아요. 하느님이 당신에게 연장한 수명을 다하지 못했기에 염라대왕이 감히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요.”라고 하며 낭랑한 웃음을 지었다.

마음속으로 혐오감을 느낀 나는 돈을 꺼내면서 “당신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닌가

요? 가져요. 가져요.”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돈을 받고 빨리 가라는 뜻이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관상쟁이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셨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이 그대로 해야 했다. 그 관상쟁이가 앓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로 잘 통했다. 대체로 아버지는 평생 수많은 인명을 구하고 덕을 쌓으셨으므로 원래 하늘이 정한 수명은 64세였지만, 사람을 많이 구해 하느님이 20년을 더 수여해 주신 덕분에 84세까지 장수하고 자손에게 복을 줬다는 뜻이었다.

관상쟁이가 마침내 말을 마치고 떠날 때 “운명 속에 있다면 언제나 있는 것으로 팔자에 없을 땐 강요하지 말아라. 관청의 운운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마음을 지키며 덕을 쌓고 복을 빌 거라.”고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뜻인 즉 마치 이 몇 마디 말이 나에

게 한 말인 것 같았다.

나는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며 “떠돌아다니는 건달이 바른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 라며 중얼거렸다. “방외인 이 말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 네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너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너는 이 몇 마디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찍소리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방으로 돌아가시려 하자 나는 아버지를 집으로 부축해 드렸다.

대기근 시절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갑자기 엄숙해졌다. “너의 사업을 나는 묻지 않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사람을 못 살게 굴지 마라. 공산당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수법을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다. 형제 중에 내가 너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기를 검사 위원회는 까놓고 말하면 바로 공산당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곳이다. 아까 그 관상쟁이가 잘 말했는데, 내가 확실히 한 마을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그해 너는 겨우 8살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그의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1958년, 아버지가 우파로 몰렸는데 온 집안이 연루되어 농촌으로 쫓겨나 소를 묶어 놓는 초막에서 살았다.

오래지 않아 현에서 아버지의 출신이 가난하기에 우파 딱지를 떼고 공장으로 돌아가 계속 근무하라는 편지가 왔다. 실제로 아버지는 공장의 기술권위자였다. 아버지가 쫓겨나자 공장의 일부 기계가 멈춰 섰다. 편지를 받은 후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공장



에 돌아가지 않았다.

얼마 안 있고 아버지는 대대 간부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식량 생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성과를 크게 부풀리던 시절에 각 마을은 모두 큰 식당이었다. 1958년 대대적으로 강철을 제련하여 집집이 솥을 다 부수고 용광로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집집이 낱알도 없었다. 식량의 대부분을 바치어 마을의 창고에는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에서 또 검사하러 오려 했다. 아버지는 조급한 나머지 입에 물집이 생겼고, 밤새 마을 간부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어떻게 하면 나머지 식량을 지킬 수 있을지 의논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보초가 가장 은밀한 곳에 움을 파서 곡식을 숨겼다. 다른 한 무리 사람들은 대장이 이끌고 밭에 남은 겨우 십여 무의 고구마를 급히 거두어들였다.

이 모든 것은 밤에 서둘러서 한 일이므로 등불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로지 달빛과 별빛에 의지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할 수도 담배를 피울 수도 없었다. 서둘러 고구마를 거두어들이는데 전체적으로 아낙네들이 낫으로 줄기를 베면 뒤따라 소 쟁기질을 하고 남자 일꾼들은 고구마를 지고 땅굴에 가져가는 흐름의

이 말을 들은 위안 대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과거 류머티즘 관절염, 위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앓다가 병 때문에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모든 질병이 기적같이 모두 사라졌다. 부인은 여러 차례나 그에게 파룬궁의 주요 저작《전법륜》을 읽으라고 권유하였지만, 위안 대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 병상에 누운 그는 부인의 선의 권유에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파룬따파를 수련 신기한 변화를 깨닫다

위안 대령은 부인과 함께 파룬궁의 5조 공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 연공한 후에 위안 대령은 왼쪽 가슴의 통증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더는 예전처럼 호흡이 곤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 속까지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피로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 신기한 감각이 그로 하여금 자세히 《전법륜》을 연구하려는 결심을 내렸다.

위안 대령은 《전법륜》을 다 읽은 후, 격동하며 말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읽은 건 제 과거 생의 처음이었어요. 나는 이것은 선행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반복해서 읽으려 합니다. 어느새 내 몸 상태는 바뀌었는데 질병의 증상은 사라지고 비판적인 정서가 사라졌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전법륜》이 나에게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르쳐줬는데 나는 오직 마음이 정화되고 경지가 승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어요.”

위안 대령은 자신이 매우 운이 좋다고 느꼈다: “한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서 병을 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병에 걸린 억만장자가 모든 재부를 쏟아부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없으나, 나는 책 한 권과 다섯 가지 공법을 연마하고 회복되었으니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전법륜》 책 속의 많은 논술들이 인생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진, 선, 인(真、善、忍)’의 요구대로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혜택을 받고 세인이 진상을 알기를 기대하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잔혹한 박해를 받는 것을 알게 된 위안 대령은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렸고, 많은 사람이 마약 복용, 범죄 등 악행으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그가 파룬궁을 알아본다면 그는 생명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말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을 추구하다가도 큰 기회가 찾아오면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데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파룬궁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과 필요 한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공군 대령의 “건강의 꿈”



위안 대령은 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했는데 무술이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목표는 거의 평생 그의 추구가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위안 대령은 마침내 배움에 성과를 가져왔는데 1986년부터 그는 베트남 공군 방공대학의 무술 코치를 맡았다. 여러 해 동안 교편을 잡고, 많은 영예를 누렸고, 명성은 점점 커지자 그도 늘 기준의 성적에 젖어 자신이 성공자라고 생각했다.

완벽한 인생에 흄이 생기다

확실히, 동료와 학생들의 눈에는 위안 대령은 거의 완벽해 보였다. 그도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길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해왔다. 특히 건강 면에서 그는 자신의 수십 년 된 무술 실력으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럴듯한 겉면이 그의 마음속의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왼쪽 가슴에 은근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위안 대령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2015년, 위안 대령은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신체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혈압이 110-180mmHg로 높게 나왔고 심장판막 병도 발견돼 대회 조직 기구는 그의 참가 자격

을 취소함으로써 이로 인해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는 바꿀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에 관한 “신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위안 대령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흄이 나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인생 나약함을 깨닫고 미래를 산중히 생각

고급 장교로서 위안 대령은 최고의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그에게 상황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아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장 판막은 적절한 시간에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의 인생의 휘황찬란함이 이때부터 끝났음을 의미하며 퇴원하더라도 “심장질환자”라는 꼬리표가 그의 여생을 수반할 것이다.

운명의 비극은 위안 대령에게 막대한 비애를 느끼게 했다: 이대로 무술 인생과 작별해야 하는가? 어릴 때부터 무술을 익히면서 수십 년 동안 하루도 계을리할 수 없이 이렇게 부지런히 하였으니 기초가 깊은 무술가라고 불릴 만한데 왜 질병의 앞에서 이렇게 취약한가?

위안 대령의 정신이 거의 무너지는 순간, 부인은 그에게 한가지 건의를 하였다. 부인은 그에게: “파룬궁을 수련하세요, 많은 불치병 환자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서 완쾌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작업이었다.

날이 밝았을 때 십여 무 밭의 고구마를 다 거두고 헛간 안의 식량도 다 숨겨 놓아 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밭머리에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자 우리 기족은 모두 놀라서 울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아버지는 또 현에서 온 검사 단을 접대하러 갔다. 어젯밤에 거두어 들인 고구마밭에 이미 보리를 심었다. 현장 회의에서 검사 단은: 질과 양을 보증하면서 겨울 파종 임무를 제일 먼저 완수했다며 아버지를 칭찬했고, 아버지가 가장 보수적이어서 올해 식량을 가장 적게 바친 소대라고 비판했다. 아버지는 “내년에 식량 장원이 되겠다!”며 시치미를 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60년 봄까지 우리 마을의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곡식은 온 마을 사람의 목숨이기에 곡식을 숨겨 두는 곳에 사람을 보내 밤낮으로 보초를 서서 지키게 하였다.”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감히 추억할 수가 없다. 마른 고구마 모종은 원래 소에게 먹였던 것인데, 물에 담갔다가 고구마 줄기에 섞어서 사람도 먹었다. 소 사료를 사람도 밥으로 먹었다. 겨우 보리 가을 할 때까지 벼터 웠는데 마을에는 식량이 끊기지 않아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으며, 부은 사람도 없었다. 햇곡식을 거두었으니 드디어 귀신의 관문을 넘은 셈이다. 이때 현에서 또 편지를 보내서 나를 돌아가라고 재촉하니 나는 어쩔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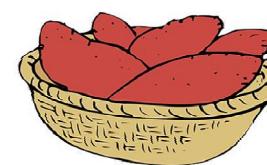
이 돌아가야 했다. 우리 집을 돌려주어 나는 너희들을 모두 데려온 것이다. 떠날 때, 온 마

을 사람, 마을 간부, 대대 간부들이 배웅하였는데 울고, 끌어안고, 잡아당기며 가지 말라고 했다.”

관상쟁이의 말이 들어맞았다

부친은 흐뭇하게 웃으며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벼슬을 원하지 않았고, 우파도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2년 동안 마을 관리로 일하며 마을 백성의 목숨을 구하여 하느님이 나에게 20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 나는 올해 80살이니 아직 4년이 남았다. 어떤 일들은 믿지 않을 수 없단다. 나는 너의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점쟁이가 나를 64살까지 산다고 했는데 64살에 안 죽었기에 점쟁이의 말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늘 내가 사람을 많이 구했기에 하늘이 나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고 관상쟁이가 말했다. 하느님이 수명을 늘려 주신 이상 우리는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느님을 볼 면목이 있단다. 84세에 내가 죽으면 관상쟁이가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을 말한다. 너희는 공산당의 무신론을 더는 믿지 말고, 또 아이들에게 덕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며 내 생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라. 신을 믿거나 말 거느냐는 자기 일이다. 어차피 신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으므로 매사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후대에도 좋을 것이다.”

아버지는 84세 112일을 사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2주년 후, 나는 운 좋게 파룬따파를 만나 수련을 시작했다. 일찍이 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의 바람이었다. 공산당의 무신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는지 모른다.





우리 집 3대가 파룬따파의 운혜로 행복하다

어머니가 80세가 되든 해, 나의 세 아이는 아직 어려 한창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직업이 없었는데 많은 병으로 앓고 있어 나는 여섯 식구의 기둥이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무너진다.

암에 걸려 집이 무너졌다

1990년 말에 나는 암에 걸려 결장을 절제하고 병원에서 화학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회사는 나에게 무급 휴직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서명하지 않아 강제로 월급 지급을 정지당했다. 나는 내가 “무급 휴직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상사에게 여러 번 상소하였다: 나의 현재 월급은 온 가족이 의지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원천이다. 지금 나는 또 병이 위중해서 일할 수 없는데 만일 무급 휴직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된다.

그러나 직장 상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의 월급 지급을 계속 중지하며 우리 집 늙은이, 환자와 세아이의 생활 원천을 끊어버렸다. 나는 황급에 직장을 상급에 한

층 한층 고소했다. 이후로 월급 지급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약값 등은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 집 하늘의 먹구름은 늘 흩어지지 않기에 나는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다.

나는 승복하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고 도처에 고자질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병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 곤란으로,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스트레스로 나는 심한 고통을 느끼며 절망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싸워 쌍방이 함께 죽는 방법으로 이생을 마감하려 했다.

80세 된 모친은 나의 기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타일렀다: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자



“삼퇴” 하고 보험에 들다

예전에는 대륙의 방송, 텔레비전, 신문의 조작된 선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편견을 품고 파룬궁을 대했다. 올해 3월 귀염둥이 아들이 출생 후, 만 한 달 생일에 저의 아버지의 친구이자 파룬궁 수련생인 양 씨 아저씨가 나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말해주었다. 그는 “파룬궁은 불가 수련의 고덕 대법이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기이한 효과가 있어요. 주로 사람들에게 선을 지향하고 타인을 위해 생각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들 장사하는 사람은 일이 생기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장사를 잘할 것이고 장사는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에게 공산당의 사악함을 말했는데 가짜, 사악, 폭행부터 “64” 실인까지, 그리고 파룬궁 박해 및 현재의 탐오, 부패 등 사회 현상을 말했다. 그는 나에게 “천멸중공(天灭中共)은 하늘의 뜻이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해야 무



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재난이 닥쳐올 때 신, 불은 온갖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은 끝이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아저씨는 사실대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모두 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입했던 단원, 소선대 조직을 설명으로 탈퇴하고 돈 한 푼도 안 드는 보험에 들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쓴 이유는 지금까지 “삼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빨리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라는 것이다. 큰 재난이 닥치면 정말 무사할 수 있는데 내가 바로 진실한 증인인바 “삼퇴”는 내가 천진 대폭발 재난을 모면한 비결이다.

왜 “삼퇴”를 하는가?

중공은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한다. 중공 소선대, 공청단, 공산당에 가입할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 “그 당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는데 이것은 독 맹세이므로 공개적인 성명으로 중공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간칭 “삼퇴”)에서 탈퇴해야만 독 맹세를 제거할 수 있고,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도태를 면하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니 진심으로 “삼퇴”한다면 실명, 가명, 아명으로도 똑같이 유효하다.

천진 대폭발 재난을 모면한 비결

문/샤오통(小童)

우리가 호텔을 막 떠난 지 한 시간 남짓 지났을 때, 천진시 서해 물류회사의 화학품 창고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우리가 묵는 여관 부근은 모두 중재 지역이었는데 우리 몇 사람은 모두 이 재난을 피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신이 보호하다

나는 당산시 풍윤구에 사는 샤오통이라고 한다. 2015년 8월 12일, 나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천진시 번해 새 구역의 한 회사에 와서 빛 독촉을 했다. 100km 남짓하기에 한 시간 남짓한 거리밖에 안 되므로 별로 연락도 없이 우리는 직접 차를 몰고 서해 물류회사 근처에 있는 모 회사에 왔다. 공교롭게도 회사 사장이 외출하였는데 저녁에야 집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근에서 호텔을 찾아 묵고 내일 결산을 해야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 몇 사람은 함께 번화한 해안가를 잠시 돌아다녔고, 9시 넘어서 호텔로 돌아와 쉴 준비를 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한 살도 안 된 나의 귀염동이 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 아우성치고 있어 진찰을 받아야 했다.

나의 아내는 평소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만약 아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간

다면 집에는 5살짜리 딸만 남게 되니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더러 당장 집에 돌아 오라고 했다. 나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내 귀염동이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체크아웃을 하고 서둘러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은 이미 나아 배가 아프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일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것이 조금 아쉬웠다.

다음날에야 우리가 호텔을 떠난 지 한 시간 여 만에 천진시 서해물류회사의 화학품 창고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묵은 려관 근처는 모두 재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이었는데 우리 몇 명은 일찍 떠났기에 모두 재난을 모면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다른 일이었다면 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필이면 내 귀염동이 아들이 병이 났으니 나는 반드시 즉시 달려와야 했다. 한 시간 이상 더 머뭇거리면 재앙도 내 머리 위에 떨어졌을 것이다.

나의 귀염동이 아들이 병들어 나를 돌아오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삼퇴” (중공 당원, 단원, 소선대 탈출)가 나를 천진 대폭발이라는 재난에서 모면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난 중에 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신의 몸을 튼튼히하는 것이다. 너는 이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고비를 넘기면 좋아질지도 모른다. 너는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사람이 좋은 결말이 있는 걸 보았느냐? 년로하신 모친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다.

귀인이 일찍 오기를 바라다

나의 고난은 언제까지 일까? 점쟁이가 나에게 점을 쳐주었다: 당신은 재난이 있고, 복도 있어요. 재난은 누군가 당신을 혼내줄지도 당신이 이 화를 참으면 복이 됩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귀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격이 너무 포악해서 이치는 따지지만, 너무 지나쳐 큰 관리든 작은 관리든 겁내지 않으니, 어쨌든 고소하여 승부를 겨루려는 이 성격을 고치고 참아야 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대운이 옵니다. 꼭 귀인을 만나 구해줄 겁니다. 지금 집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되니, 당신이 화를 참으면 행복의 인연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즐겨 듣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삶에 대한 갈망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특히 나는 그 당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았기에 삶에 대한 갈망이 특히 강했다. 나는 어떤 ‘귀인’이 나를 도와 난관을 넘기를 바랬다.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해서 병을 고치려해도 돈이 없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은 분명히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 의사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 의사를 찾아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대법을 수련하고 새 생명을 얻다

1995년 초 어느 날, 내가 육교를 건너는데 낯선 남자가 갑자기 와서 내 손을 잡고 “소송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었다. 내가 어리둥절하여지자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권고하는데 싸우지 말아요. 명백히 말해 누가 당신을 혼내 주는데, 당신의 몸이 이렇게 나쁘고 또 아무도 당신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당신을 도와준다면 100%이길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이 화를 참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데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가 전근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이 참고 한 걸음 양보하면 좋겠어요. 북쪽에 당신을 구해 줄 귀인이 있으니 나의 충고를 들어도 틀리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했다: 나의 ‘귀인’이 북쪽에서 온다면 나는 북쪽에 가서 찾겠다.

우리 집 북쪽 쪽 위쪽에 한의원이 있는데, 같은 해 5월에 나는 이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의사가 진료 기록을 받아 보고 직언했다: “이런 병에 약은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일종의 아주 좋은 기공이 있는데 파룬궁이라고 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이 도청 앞마당에서 연공하고 있고, 공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 푼도 받지 않으니 당신이 가서 연마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파룬궁” 세 글자를 듣자 마음이 갑자기 움찔했다. 매우 흥분되었는데 물론 막연한 것 이 더 많았다. 집에 돌아가서 마음속으로 한번 또 한 번 “파룬궁” 세 글자를 생각했는데 나의 마음이 트이는 것 같았다: 파룬궁을 연마하자! 지금의 약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있으니 먹지 않고 파룬궁을 연마하

겠다! 파룬궁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의”가 아닌가?!

나는 날이 밝자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나의 생각을 마음씨 고운 의사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즉시 연공 음악과 《파룬궁(法輪功)》책을 나에게 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해 몇 달 후, 나는 스스로 기운이 생기고 몸이 좋아졌음을 느꼈으며 온몸에 불편함과 통증이 없었다. 나는 너무나 감동되어 자주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가슴에는 감사로 기득 찼다. 리훙쯔 사부님께서 내가 중병으로 시달리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 집의 이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후에 나는 연공점에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읽으면서 많은 이치를 깨달았다.

도리를 분명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한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 온갖 이기적인 잡념을 없애버리고, 한을 풀고 선을 수련하라고 가르치셨다. 사부님의 말씀대로 나는 소송을 포기하고, 일리가 있다고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싸

움의 마음을 버렸더니 단번에 훨씬 훌기분하게 느꼈고 나도 점점 평화로워졌다.

나의 암 병은 다 나아 나는 건강하며 완전히 건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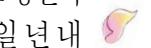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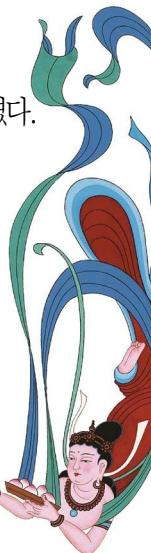
1995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고, 약 한 알도 먹지 않았다. 가족들은 내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병과 고별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파룬궁은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했다.

마음이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할 때, 온 집안에서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아내는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다.

진상을 알고 온 가족 복을 받았다

나의 큰아들은 그해 사악한 당에 입당한 후 모 회사의 책임자로 빌터되어 수리 공사를 맡았다. 그의 공사장 구역과 회사 사이에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는데 백성이 말하는 “큰 물이 지지 않았는데 바위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공정은 늘 중단되고 생산도 중단되는 상태가 되었다. 회사는 이로 인해 일 년 내내 결손을 보아 수익성이 없었으므로 노동자 월급은 행방이 없었다. 아들은 과중한 부담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정서가 우울했는데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파룬따파는 불법이다. 장쩌민과 중공이 상호 이용하며 불법을



를 풀었다. 그러나 큰 파도가 와서 구명보트를 떠내려 보냈다. 놀란 선원들은 서둘러 배를 떠나려면 큰 포말 판을 끌어안고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선체가 급격히 가라앉을 때 형성되는 소용돌이 때문에 사람을 해저에 끌어들일 수 있었다. 10여 분 후 배가 바다에 삼켜졌다.

망망한 대해에서 선원들은 포말판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모두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포말 판을 꼭 껴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끝없는 바다 위를 떠다니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배를 채웠다. 잠시 후 큰 파도에 휩쓸려 갔던 구명보트가 갑자기 신기하게도 떠내려왔다.

장초토는 구명보트가 그들과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헤엄쳐 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구명보트를 펼쳐 놓아 선원 전원이 구명보트에 올라탔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건졌으므로 선원들은 몹시 감동했다.

이때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해면에는 5~6급의 바닷바람이 일파만파로 일고 있었다. 이 위급한 때에 재난을 당한 선원들은 화물선 한 척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 련락을 도와주었다. 마침내 재난을 당한 선원이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모두 기쁘기 그지없었다. 모두 마음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파룬따파의 은덕에 감격했다! 그런 무한한 경모와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장융제는 친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기에 그는 서둘러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서 다른 선원들도 따라 읽으라고 했다.

얼마 되지 않아 해수면에 아주 큰 심상한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오고 이어 생수가 한 병 한 병 떠내려왔다. 다들 생수를 건



왜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으면 복 받는가? “사람의 마음에 일념이 생기면 천지가 다 알고 있기”에 파루따파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래도 시비를 똑똑히 알고 선량함을 지지하는 이 가장 소중한 일념으로 하늘의 보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는 천 리의 체현이다. 전국 각지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었기에 위험에 처했을 때 평온하게 된 사례가 도처에 있다.

바다에서 넋을 잃다

망망한 대海上에서 선원들은 포말 판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모두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포말 판을 꼭 껴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끝없이 바다 위를 떠다니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가 해저에 가라앉아 목숨이 매우 위험

2014년 10월 28일 오후, 광동성 모명시 전백구 박하진의 시멘트 배 한 척이 귀향길에 충저우 해협에 이르렀다.

오후 4시에 선원들이 식사 후 선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더니 선실로 들어와서 선실에 있던 장초토(張超滔)는 온몸이 흠뻑 젖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서 치약 상자로 선실 문을 꽉 막아 버리려고, 아직 다 막지 않았는데 또 다른 파도

가 쳐들어왔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껴져 상황을 보기 위해 선실을 뛰쳐나갔는데 선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우 놀란 장초토는 큰 소리로 선원들을 불렀다: “어서 빨리 일어나세요, 배가 뒤집히려 합니다!” 선장은 급히 형제 선박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청했지만,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배는 이미 신속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장초토와 장융제(張永杰) 두 선원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구명보트

박해하고 아버지 같은 불법을 수련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을 박해하였으니 중공의 죄악이 너무 크기에 하늘이 그것을 멸하려 한다. 네가 그것의 한 개 분자로 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어서 빨리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출하거라. 아들은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고, 진선인은 좋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는 늘 말했다: 파룬궁은 너무 대단합니다. 암도 연공 하여 나있으니 세계적으로 유일한 가장 좋은 공법입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당은 직장의 조직에 가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탈퇴하는 것이고, 하늘을 향해 신에게 사당에서 탈출하려는 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평안한 보험을 들고 그 짐승의 기호를 지우는 것이기에 사람은 비로소 미래가 있을 것이다. 큰아들은 “좋아요, 나를 도와서 모두 탈출시켜 주세요.”라고 말했다.

매우 신기하게 간단해 보이는 퇴자가 큰아들의 삶의 경계선이 되었다. 원래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집에서 두 달 이상 한가로이 지내던 그가 “탈퇴”를 표명한 다음 날, 상사가 그를 다른 회사로 전근시켜 업무를 주재하게 했다. 같은 수리공정 회사인데 더 이상 자연재해에 시달릴 일이 없어 정상 조업을 할 수 있고, 공사의 품질과 경제효과가 모두 매우 좋아서 그가 주관하는 공사는 검사 결과 우수한 품질의 공정으로 정해졌다. 가정은 5호 가정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다. 그 자신도 “삼퇴”는 평안을 지키고, “삼퇴”는 미래가 있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며 정말 영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내아들은 운전사로서 대법을 매우 믿어 “삼퇴”를 권하자 시원스럽게 승낙했다. 어느 해 막내아들은 공사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20여 미터나 뒤집혀 차가 모두 부서졌다. 같은 조종실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불행히도 죽었지만, 그는 오히려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물기를 당신 집은 어떤 선향을 피우나요? 그는 말했다. 선향이라니? 우리 집 부모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나는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믿기에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2008년 큰 손녀는 빌에 물집이 생겨 아프다고 소리쳤다. 다급한 그녀의 부모는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상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큰 손녀더러 소선대에서 탈출하라고 권하며 할아버지의 파룬따파를 수련하기에 한 사람이 수련하면 온 가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네가 매일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틀림없이 나아질 것이다. 손녀는 믿고 매일 “아홉 글자 길언”을 읽었다. 한 달도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다. 손녀도 빌이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손녀딸은 1학년 때 유급생이었는데 지금은 늘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읽어 공부도 잘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중점학교에 합격했고 대학도 명문대이다.

기족들은 모두 파룬따파가 나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온 기족을 구하여 일가 3대가 파룬따파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온 기족은 파룬따파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리훙쯔 사부님이 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드립니다.



부친의 감동

문/링샤오(凌霄)

나는 대륙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1년 전 팔순에 가까운 나의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생명의 위험은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위독해 온 가족 고통에 빠져

나의 남동생은 병원의 검사 결과를 달가워하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가서 주치의에게 “저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의사는 머리를 저으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폐암 말기라서 수술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입원해서 화학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반년밖에 지탱할 수 없습니다. 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완치될 수 없어요!”

어머니의 병에 의사는 속수무책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 가족이 고통에 휩싸여 있는데 80세 되는 부친은 몇 번이나 목이 메도록 통곡했다. 20년간 파룬궁을 수련한 나는 가족에게 파룬따파의 병을 치료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신기한 기적을 여러분도 직접 듣고 보았으므로 지금 어머니의 유일한 살길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말을 들은 누님과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는데 유독 아버지(퇴직한 정공처급 간부)만이 중공의 거짓말에 속아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너의 엄마의 병이



나아진다면 무슨 공법이든 나는 의견이 없다. 하지만 파룬궁은 안된다! 우리는 정부와 맞설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일단 입원 치료를 하고 효과가 어떤지를 보자. 연공하는 일은 퇴원하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고 말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화학치료의 강한 부작용으로 몸은 점점 더 허약해져 메스꺼움과 구토, 호흡이 곤란했다. 나는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권고했다. 어머니는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언짢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망설이다가 병이 악화하여 목숨이 위태로웠다.

나는 집에 가서 아버지의 생활을 돌보면서 아버지께 완곡한 말로 설득하고 진일보로 그에게 파룬따파의 진상을 말해주었다. 아버지 마음속의 굳어 있는 얼음이 마침내 서서히 녹아내리더니 어머니가 파룬궁을 “시험해 보는데” 동의했다.

마시였지만, 나는 이 아홉 글자를 몇 번 읽다가 뜻밖에도 잠이 들었다. 꿈에서 본 것은: 침대 위에 같은 카드가 두껍게 쌓여 있어 나는 신나서 손을 뻗어 여러 장을 잡았다. 깨어난 후 나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싶었다. 마누라는 서둘러 쌀국 반공기에 설탕을 조금 넣고 끓여서 먹여 주었다. 나는 마시고 나서 토하지 않았다.

이 때부터 나는 쉬지 않고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목

념했다. 나는 하루하루 좋았기 시작했다.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내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나의 간 부위가 또 약간 아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간암이 재발했다고 말했다.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였더니 결국 담낭염이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읽었더니 담낭염이 회복되었다.

지금 나는 살면 살수록 활기차다!



인터넷 봉쇄를 뚫고 진실세계 찾아

돌파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컴퓨터 버전 <https://git.io/fgp> <https://git.io/umexe>

안탁 버전 https://git.io/fg_ma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주의사항

국산 브라우저로 이런 인터넷 주소가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니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더 많은 진상을 흘려보려면 파룬따파 명예망을 방문 www.minghui.org





길언 구명



살면 살수록 활기차다



나의 이름은 정창유(曾常由)이고 올해 72살이다. 66세 되던 해 폐암에 걸렸는데 간으로 이전되어 의사는 내가 기껏해야 10일 정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뒷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종이, 폭죽을 사러 갔고, 며느리는 내 모든 옷과 이불을 태웠고, 마누라는 눈물을 흘리며 큰 비닐통 두 개를 메고 백주사러 갔는데……

술을 파는 가게에서 한 여사가 마누라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많은 술을 사요? 마누라는 남편이 암에 걸려 죽게 되어 장례 준비를 하려고 술을 산다고 말했다. 그 여사는 물었다. 당신 남편은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나요? 마누라는 그녀에게 내가 중공 당원이라고 말했다. 그 여사는 또 물었다. 당신의 남편이 탈당을 동의하나요? 마누라는 동의해요. 여사는 마누라에게 먼저 돌아가서 본인의 의사를 묻고 다시 돌아와서 술을 사라고 했다. 마누라는 정말 술통을 내려놓고 달려와서 나에게 물었다. 탈당할 의향이 있나요? 나는 비록 죽음에 임했지만, 이때 맑은 정신으로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여 “탈퇴하겠어요!”라고 말했다.

마누라는 또 재빨리 뛰어가 그 여사에게 내가 탈당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 여사

는 내 이름을 묻고는 또 마누라에게 공산당이 “거짓, 사악, 폭력” 운동을 여러 차례 하며 어떻게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을 박했고 파룬궁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누라에게 작고 예쁜 카드 한장을 주었는데 위에는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큰 재난에 목숨을 지킬수 있다”고 써 있었다. 마누라에게 돌아가 나에게 주어 내가 카드에 적힌 글자 그대로 열심히 읽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술을 사지 말고 일단 돌아가서 나를 잘 돌보라고 했다.

마누라가 돌아오자 카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비록 흐리멍덩한 상태이지만, 이 몇 글자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좋아, “큰 재난에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지금 염라대왕이 아직 내 목숨을 가져가지 않았으니 나는 어서 이 아홉 글자를 읽고 목숨을 지켜야겠다.

말하자면 이상하게도 나는 묵념하자마자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이미 여위었고, 피도 다 토하여 오랫동안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파룬따파를 수련, 어머니의 새로운 삶

어머니가 퇴원한 후, 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사부님의 전체 설법 녹음을 단숨에 들었다. 남동생은 파룬따파의 박대 정심한 법리에 격동되고 사람이 시는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인생의 침듯을 찾았다면 파룬따파를 수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설법을 듣고는 흥분하며 말했다. “나는 내심으로 알게되어 마음이 밝아졌고 내 병은 희망이 생겼다. 파룬궁은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다!”

법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어느새 어머니의 몸이 좋아지고, 먹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자온몸에 힘이 생겼고, 얼굴은 혈색이 좋고 윤기가 흐르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 불과 3개월 만에 어머니는 환골탈태하듯 몸의 변화가 아주 컸다.

우리 남매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우리를 위해 채소를 사다 밥을 짜여주느라 바빠 보냈었는데 밖에 나가 채소를 구매하는 것부터 주방에서 각종 요리까지 몇 시간을 서둘렀지만 조금도 힘겨워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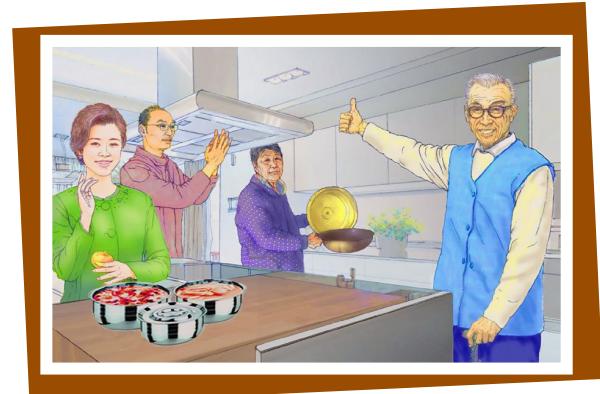
어머니의 몸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고 친지들 모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기적입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 집의 병든 가족들에게도 리훙쯔 사부님의 설법을 듣게 하겠다면서 자신의 가족도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희망했다.

의사는 연신 신기해하고, 부친은 깊이 감동

몇 달 후,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재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는데 CT 및 각종 선진 기계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반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단언했던 그 주치의는: 반복해서 검사 보고서를 보고는 놀라워하며 “신적입니다! 신적입니다! 정말 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십니까? 파룬따파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파룬따파를 배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자 아버지를 깊이 감동하게 했다! 일관되게 “무신론자”를 표방한 중공 당원이자 정공 간부인 그는 사실 앞에서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파룬궁은 진짜 경이고 미신이 아니다. 사실이 증명하는바 파룬궁은 진정한 과학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완전히 흑백을 구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침내 공산당,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하고 파룬따파 지지자가 되었다.





"산송장" 살수록 젊어진다

나는 20여 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눈물로 얼굴을 씻던 "산송장" 이었다. 2007년 우리 집 앞에 누군가 파룬궁 진상 소책자를 놓았는데 이 자료가 내 인생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다줄 줄은 몰랐다.

병고에 시달리며 거의 마비된다

나는 호남성의 어느 도시에 있는 한 전기 화학 공장의 여성 퇴직 근로자이다. 1983년 나는 가스난로 폭발사고를 겪었는데 그 당시 내 전신의 솜옷이 모두 활활 타오르는 큰 불에 타 나는 즉시 지방 도시의 부대 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석 달 입원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화장실에 가면 대변이 매우 힘들었다.

한 한의사가 나에게 화독이 체내에 스며들어 패혈증으로 악화하여 링거를 맞아 병을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정기적으로 링거를 맞으러 갔다. 몇 년이 지나자 내 두 팔은 검푸른 자주색을 띠었고 통증은 참기 힘들었다. 내가 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나에게 잠시 완화할 수 있는 처방을 주었는데 금련꽃, 국화 등 냉차를 시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 한 잔 마시라고 했다. 나는 의사의 당부에 따라 매일 냉차를 한 잔을 마셨더니 화장실에

가는 통증을 약간 완화했지만, 패혈증은 좀처럼 치료되지 않았다.

20여 년 동안 내 몸은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인후염, 기관지염, 류머티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때로는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쓰러지기도 했다. 나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경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놓아도 들어가지 않으니 오직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50살이 되던 해에 한 번 넘어졌는데 분쇄 성골절로 복사뼈가 부러졌다. 나는 당시 마비 상태에서 자립할 수 없었는데 직장의 사람들은 나를 "산송장"이라고 했다. 그 당시 내 곁에는 나를 돌봐줄 가족이 하나도 없었다. 땔은 북경에서 일하고 남편은 바람을 피워 일찍 이시를 나갔다.

절망속에서 삶의 희망이 생기다

바로 내 목숨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 절망하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나의 생명에는 전기가 나타났다.



고 당신을 신고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강 할아버지는 흔쾌히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내 병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고 나았고 이것은 사실이며 나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며 공산당보다 더 나쁜 것은 없으므로 그것은 정말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암 투병 경험이 있는 이 노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매일 가벼운 걸음으로 밖에 나가 활동하고 있다.

이 몇 년 동안 전통 명절 때마다 그는 공손히 파룬따파사부님께 축사를 써서 안부를 전하고 목숨을 구해준 리 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우리 동네에 또 이웃의 왕형님은 강 할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렸는데 역시 직장암이다. 나는 그에게 파룬따파 진상을 알려주었는데 그는 들어주지 않고 손을 저으며 나를 말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파룬궁을 비방



하는 말을 하였고 때로는 비웃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수술 후에도 1년에 몇 번 화학요법을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사람도 형편없이 말랐다. 나는 그를 매우 불쌍히 여기어 그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자진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고 항상 목숨을 구해 주는 진언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는 냉정하게 대하고 심지어 일부러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금 그의 암세포는 뼈까지 퍼졌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이것은 정말: 같은 불치병에 부동한 운명이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인생 여행 중의 복음



질병은 인류가 이겨내기 어려운 적이 되어 왔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병마에 시달리는 비애 속에 살고 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이책은 80여 가지 고질과 불치병에 걸린 구슬픈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각종 인연으로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모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 심신이 건강한 행복한 생애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모두 명혜망에서 나온 것인데 전 세계 수많은 수련자 심신 수혜 사례 중 창해일숙이다. 명혜망에 기록한 더 많은 다채로운 수련 이야기와 파룬궁 진상이 당신의 몸과 마음이 혜택을 받고 인생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같은 불치병 부동한 운명

문/완위얼(婉玉儿)

우리 동네에서 두 명이 같은 불치병에 걸렸는데 모두 직장암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강 할아버지는 얼마 안 되어 암세포가 사라졌고 몸이 정정하다. 그런데 어린 왕형은 암세포가 퍼져 거의 죽게 되었다. 이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강 할아버지는 올해 79세이며 2013년 직장암으로 수술하고 종양을 제거했다. 수술 후 1년 동안 4번의 화학치료법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한번은 그가 나를 보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병에 시달리던 고통을 하소연하고 또 몹시 부러워하면서 나에게 “당신 부부는 몸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불치병에 걸려 금생이 다 끝났어요. 나는 화학치료법이란 말만 들으면 놀라서 온몸이 떨리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요.”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매우 동정하여 마음속으로 그를 도우려 했다. 나는 그에게 “할아버지 제가 당신에게 가장 간단하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당신이 매일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고 읽으면 병고에서 벗



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더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강 할아버지는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더니 양미간을 활짝 펴고 놀라워하며 “만약 그렇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의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몇 글자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요, 당신께서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또 그에게 “만약 당신이 이 몇 글자를 읽고 병이 나으면 당신은 양심을 어기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당신께서 파룬따파가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증언할 수 있나요?”라고 당부했다. 그는 “나는 할 수 있네.”라고 단호히 말했다.

로인은 집에 돌아온 후, 정말 매일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읽었는데 그의 몸은 아주 빠르게 회복되었다. 오늘 까지 이미 4년이 되었는데 그는 다시는 화학치료를 받지 않았다.

강 할아버지는 항상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말 좋습니다!”라고 외쳤다. 누군가 그에 “누군가 듣



그것은 2007년 8월, 우리 집 문틈에 파룬궁 진상 소책자 한 권이 끼어 있었다. 나는 주워 자세히 보고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병이 나아진다는 것을 아예 믿지 않으면서 소책자를 한쪽에 버렸다.

이틀이 지나는데 나는 이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소책자에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목넘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나는 성심성의로 이 아홉 글자를 목넘했다. 어느새 나는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깨어났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곧게 비쳐 들어왔는데 마치 무대 위의 조명등처럼 눈부셨다. 나는 일어나 국수를 삶는데 이가 아픈 것이 나에게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이발이 아픈 것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파룬궁이 그렇게 신비할지도 모른다며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온몸의 병이 다 “도망가”버렸다

나는 우리 직장의 가족 속소 근처에서 파룬궁 수련생 한 분을 찾았는데 그녀는 나에게 《전법륜(转法轮)》 책을 빌려주었다. 나는 3일을 들여서 한 번 읽었는데 이 책을 너무 잘 썼다고 느껴져 나는 또 3일을 들여 다시 한번 읽었다. 이때 기적이 나타났는데 나를 20여 년간 괴롭혔던 고질병이 사라졌다.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 것이 전부 정상이었는데 그때 나의 흥분된 심정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부지런히 연공하였고 짬만 있으면 《전법륜》을 공부했다.

한 달 후, 직장 동료는 나를 보고 놀라서 아연실색했다: “우와, 상상도 못하게 이 ‘산송장’이 더 짚어지다니, 얼굴엔 흥조가 비껴 화장을 한 것 같이 너무 예뻐요.”라고 말했다.

아무도 내가 침대에 누워 죽기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곤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한 알도 먹지 않고 병이 없어 온몸이 가벼운 상태로 되었다.



파룬따파 홍전 세계

1992년 5월 13일,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 사부님께서 파룬따파(파룬궁)를 중국 장춘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했다.

파룬따파는 불가 상승의 수련대법으로서 “진, 선, 인(真、善、忍)”을 근본지 도로 하며 5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파룬궁이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뛰어난 효과로 인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아주 빨리 집집이 다 알게 되어 온 중국에 두루 퍼지며 세계로 퍼져 나갔다. 오늘에 이르러 파룬궁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에 전해졌는데 세계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리훙쯔 선생과 파룬따파는 인류 심신 건강에 대하여 걸출한 공헌을 하였기에 여러 나라 정부의 표장 지지 의안과 편지를 3500여 가지를 받았다. 리훙쯔 선생의 저작《전법륜(转法轮)》은 이미 39종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민족 억만 명이 수련하고 심신의 익을 얻고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몸소 실증했다.

2000년 전 세계 “파룬따파 학회”는 리훙쯔 선생이 파룬궁을 세계에 널리 전한 것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리훙쯔 선생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의 5월 13일을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정했다. 2000년부터 매년 이날 전후로 전 세계 파룬궁 수

련생들은 희열과 감격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대한 경축 활동을 거행하며 세계에 “진, 선, 인”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리훙쯔 사부님에 대한 숭고한 경의와 은혜에 감사의 표현하였다.



반복한 후에 나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잠깐 자리를 뜨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이어 그녀는 나에게 파룬궁의 5조 공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연공을 하였다 말았다 하며 3일을 하였는데 기적이 나타났다. 오줌을 배출할 수 있고 몸도 근질근질하지 않고 걷고 말해도 힘이 생겨 집에 가서도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

나의 변화를 보고 놀란 남편은 격동되어 “이 공법이 어찌 이렇게 좋아요! 대박입니다!”고 말했다.

«전법륜»을 읽고 기적이 또 나타나

그 후 나는 소원대로 «전법륜»을 얻었는데 정말 귀중한 보물을 얻은 것 같았다. 몇 번이고 통독을 거듭한 후에 나는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목적, 또 알고자 했고 또한 해석하지 못했던 많고 많은 문제를 갑자기 알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사부님께서 여러 번 나의 몸을 청리(淸理)해 주셨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나는 온몸이 추워지고 이불 두 채를 덮고도 여전히 추워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독감에 걸린 것처럼 뼈가 시큰거렸다.



다음 날엔 온몸이 균질근질하였는데 몸시 가려웠다. 셋째 날은 온몸에 통증을 느꼈는데 어디나 아팠다. 3일 후, 정말 환골탈태를 한 것 같았는데 예전에 무거웠던 몸이 너무 가벼워져서 걸을 때마다 하늘하늘 날리는 것 같아 너무 신기했다.

또 얼마 지나서 사부님께서는 또 나에게 청리해 주셨는데 내 몸에서 작은 붉은 점들이 잔뜩 배출되어 가려워서 긁히면 팃물이 흘러내렸다. 석 달 후엔 깨끗하게 배출되고, 그 후엔 몸도 깨끗하고 피부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얼굴빛도 홍조를 띠었다.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되니 가정이 화복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여 나와 가족들은 다 좋아졌다. 파룬궁은 나의 병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진, 선, 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예전에 성미가 급했던 나는 지금 상냥하게 말하고 모든 사람을 선의로 대한다. 파룬따파가 나를 다시 만들었다.

남편은 내 몸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보고 파룬궁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도 «전법륜»을 보았다. 그는 집에서 집안일을 앞다투어서 하며 나를 충분한 시간으로 «전법륜»을 보고 연공하게 하였다. 우리 집에서 다시는 옛날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있다. 아이는 방학에 돌아와 내 몸의 변화를 보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에 겨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도다(佛光普照, 礼義圓明).”네!



요독증 환자의 새로운 삶

문/후이춘(惠春)

우리 집은 흑룡강성 계서시에 있고 비록 나는 가정주부지만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불치병의 고통으로 죽지 못해서 살다

1990년 초에 나는 신장염에 걸렸는데 이렇게 10년을 앓았다. 이 10년 동안 나는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찾아다니며 집에 저축을 다 써버렸는데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나중엔 요독증으로 발전했다.

2004년 8월 내가 병원에서 피를 뽑아 검사한 결과는: 요소 질소 22(정상 수치는 3.2-7.1mmol/L), 크레아티닌 374(정상 수치는 88-133 μ mol/L), 그리고 고도의 빈혈까지 동반하여 위중한 환자가 되었다. 의사는 “당신의 생명은 신장을 바꾸거나 투석을 통해 유지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치료 비용은 나에게는 모두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오줌이 잘 나오지 않아 온몸이 붓고 독소가 온몸의 모공에서 새어 나와 몸이 균질근질하여 견딜 수 없었다. 배가 불룩하여 윗몸 일으키기도 힘들었다. 항상 메스꺼움에 구토했다. 얼굴색이 검고 노란 나는 병마에 시

달려 반죽음이 되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른 나는 심지어 하루도 살기 싫었다.

파룬궁을 삼일 연공하고 요독증이 완치

나의 생명이 위독한 바로 그때 이웃집에 면 친척이 광동 주해에서 왔다. 그녀는 내가 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심지어 불치병까지 당신이 진심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알려주면서 나에게 물기를 파룬궁을 수련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때 힘없이 “수련하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통증을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며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나의 상황을 보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낭랑한 목소리로 《전법륜(转法轮)》을 한 글자 한 구절씩 읽어 주었다. 이상한 것은 그녀가 책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록 그녀가 읽는 내용이 많아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는 온몸이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예전처럼 힘들었다. 내가 다시 그녀의 집에 가서 그녀가 책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또 온몸이 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미국



홍콩



대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마비된 지 7년 만에 나는 일어났다

문/류원쥔(劉文君)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여덟 번째 딸이다. 갓 태어났을 때, 여덟 번째 할아버지는 점쟁이 책을 들고서 책과 대조해 보면 나의 팔자는 “불길한 놈”, “재수 없는 놈”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듣기 싫어서 또 도시에서 두 눈이 실명한 점쟁이를 모셔서 내게 점쳐 주었다. 이분은 “그녀는 신불이 하늘에서 속죄하라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평생 고난이 많지만 좋은 일입니다.”고 말했다.

선녀를 보면서 자라다

나는 못생겼고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항상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나는 땔나무 더미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몰래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눈물로 눈이 희미할 때, 나는 많은 신선을 보았다. 그런 큰 소매의 옛날 옷을 입은 선녀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는데 나의 기분이 금방 좋



시련이 닥쳐왔다

26살이 되든 해, 우리 가족은 도시로 이사

아졌다. 그 후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장작더미로 달려가 신선을 보고 선녀를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늘 밭에서 긴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을 만났고 그는 항상 나에게 소책자를 보여주었는데 마치 오늘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진상 소책자와 같이 그 속에는 모두 신화 이야기가 들어 있어 나는 정말 즐겨 보았다. 매번 다 보고 나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소책자가 없어졌다.

가망이 없는데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해 보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 읽어보자!

생존하기 위해 린평은 밤낮으로 경건하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었다. 5, 6일 후에 그는 앓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좋아졌다. 또 며칠이 지나 시험해보니 침상에서 내려올 수 있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그는 몹시 놀랐다! 이 파룬따파는 정말 대단하며 아주 탁월하다!



집으로 돌아온 린평은 단숨에 《전법륜(转法轮)》책을 다 읽었다. 예전에 불교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았지만, 수련이 뭔지는 잘 몰랐고 또 사람이 사는 진정한 의미도 몰랐는데 이 책에서 그는 답을 찾았다.

그날부터 린평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파룬궁의 서적을 읽었다. 어느 날 그의 코에서 갑자기 출혈하였는데 거의 반 대야의 피를 흘리고서야 멈추었다. 그는 이것은 사부님께서 자

신의 몸을 정화하며 피를 바꾸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는 온종일 설사했는데 배설한 것은 모두 물이고 20여 일이 지난 후 그의 몸은 봇기가 사라지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린평이 기사회생한 기적이 온 채벌 장 및 주변 지역을 놀랬다. 모두가 입소문으로 전했다: “파룬따파는 너무 신기합니다, 죽으려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파룬따파의 현묘함과 아름다움을 목격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겪은 신기한 일

린평은 너무 흥분했는데 그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그 언니를 찾아가 그녀에게 감사드리고, 또 파룬따파에 어떤 책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그는 큰 막대기를 짚고 갔다.

언니네 집 문을 열어주던 사람은 린평을 보자마자 귀신을 본 줄 알고 놀라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채벌 장의 모든 사람이 그의 판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찌하여 갑자기 여기에 왔는가?

이것이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를 구들에 끌어 앉히자 린평은 그들에게 죽어 가던 자신이 어떻게 또 좋아지는 과정을 말했다. 그는 “파룬따파가 나의 목숨을 구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고 말했다.

언니는 매우 기뻐하며 파룬따파의 서적을 린평에게 빌려 주었다.





기사회생 더 이상 전설이 아니다

문/즈예(紫叶)

린평은 산간 지역의 채벌 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찍이 먹는 것을 탐냈기 때문에 그는 얼어붙은 강에서 개구리를 잡다가 두 다리에 동상을 입어 심여 년 동안 마비로 집에 있었다. 나중에 다리 병은 마침내 나았지만, 그에게는 재난이 끊이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의사는 그에게 귀기해 죽기를 기다려

2011년 아내의 숙모가 위독하여 병문안하러 갔고, 이어서 숙모의 장례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린평은 병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병에 걸린 원인은 화(사람이 죽을 때의 입안 독기)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린평은 1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소산자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었는데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후에는 온몸이 부어서 주삿바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서 또 오상시 병원에 가서 폐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려면 피를 바꿔야 하고 피를 한 번 바꾸려면 3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3만 원도 없었다. 의사는 또 피를 바꿔도 희망이 없으니 집에 가서 죽기를 기다리며 먹고 싶은 대로 사서 먹으라고 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내는 고기도 사고 맛있는 것도 샀지만, 사실 그는 이미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밥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으며 말도 하지 못했다.

아홉 글자 진언을 읽고 기사회생

섣달 스무날에 아내가 린평이 생명을 마감하려 하자 사람을 찾아 관을 만들 목재를 마련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이는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린평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를 뵈러 왔다. 린평의 온몸이 커다란 고무공처럼 부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이 차 하는 것을 보고 “동생, 오직 파룬따파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카드 한장을 꺼내어 그에게 주면서 이것은 파룬따파 호신부인데 꼭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 선, 인(真、善、忍好)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린평은 생각했다: 나는 온종일 아미타불을 읽으며 10년 동안 읽어도 안 되는데 이 아홉 글자를 읽으면 될 수 있을까? 언니가 간 후, 그는 또 생각했다. 자신이 이 정도로서 살

를 하였고,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결혼을 했다. 가정이 생기고 집도 있기에 나만의 나날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후의 삶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1983년, 딸을 낳았는데 그때 나의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일을 조금만 해도 매우 힘들었다. 2년 후, 둘째 아이를 임신 5개월 때, 나는 자전거를 타고 다른 자전거와 충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오른쪽 다리를 쓰기 불편했고,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나는 거의 온돌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기를 출산한 후에 오른쪽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나의 남편은 민영 교사이인데 월급이 아주 낮아 집에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기에 나의 병을 치료해 줄 돈이 없었다. 나는 온돌에 누워 고통에 시달린 채 말할 힘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돈을 빌려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검사하고 내 몸속의 결핵균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정상인의 몇십 배이고, 오른쪽 볼기뼈는 이미 망가졌으니 수술을 받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는 수술대에 올랐고, 의사는 나의 오른쪽 가랑이 뼈에서 뼈를 떼어서 뼈조각으로 갈아서 나에게 맞추어 주었다.

마비 7년간 죽지 못해서 살다

수술 후 과로로 인해 3년 만에 오른쪽 다리가 또 감각이 없어지고 원래 가볍던 왼쪽 다리에도 감각이 없어지는 바람에 나는 몸을 뒤집을 능력도 없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 후 둘째가 영양실조로 칼슘이 많이 부족해 생명이 위태로웠다. 나는 또 맹장염이 발작하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

었다. 그렇게 나는 둘째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시집와서부터 그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주지 못한 나는 하느님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가문을 망치는 여편네”인가요? 정말 “불길한 놈”, “재수 없는 놈”인가요?

더 괴로운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7년 동안 나는 딱딱한 구들장같이 꽂꼬이 누워 있었는데 말라서 뼈가 양상하여 한 치 남짓한 두께밖에 안 되고 피부가 주름진 것이 물고기의 비늘 같았다. 오랫동안 누워 있어 등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해 등 전체가 꽂아 있었다. 온돌 위에 누워있는 나는 숨을 헐떡일 수 있는 것 외에 죽은 사람과 차이가 없었다.

가정 부담이 남편을 숨을 못 쉬게 짓누르고 있었다. 병 치료로 진 빚, 두 아이는 부양해야 하고, 그리고 마비로 온돌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나, 누가 봐도 우리 집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운좋게 대법을 얻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2년 전에 우리 집 근처에 한 할머니가 이사왔다. 그분은 기관지염이 있어서 온종일 목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우리 둘 사이는 아주 좋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셨는데 목도 움츠리지 않고 씩씩하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 “아이고, 자네가 이책을 보면 죽으려고 목을 매지 않게 할 것이며 확실하게 자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나는 폐 결핵, 임파 결핵, 골 결핵을 앓았고 또 경련을 일으키었다. 자주 경련을 일으키어 나는 머릿속에 아무 것

도 기억할 수 없는 바보가 되었다. 할머니가 나에게 책을 읽는 것에 대해 말하자 나는 그분에게 손을 내 저으면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자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누가 자네를 속이겠나요? 보시고 자네 마음에 들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나에게 줘도 되니 할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기도 하여 한번 보려고 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계속 잘했으므로 책을 읽는 데 문제가 없기에 나는 책을 남겼다.

이 책의 이름은 《전법륜(转法轮)》이라고 한다. 두 단락을 펼쳐보았더니 가슴이 두근거리며 또렷한 일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부처 수련이란 바로 “진, 선, 인(真、善、忍)”에 동화하는 것이고 “진, 선, 인”은 우주의 특성이다.

나는 생각했다: 줄곧 공기 등 이런 것은 우주의 자연현상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주에는 또한 특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이 나른해 나며 정말 편안했다. 인간 세상으로 와서 그렇게 편했던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았다! 편해지자마자 나는 눈을 감았는데 이 책은 가슴에 놓여 있는 채로 나는 잠들었다.

좋은 꿈 영험하여 기사회생

잠들자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하늘은 아주 푸르렀다. 하늘 남쪽에 큰 부처가 나타났는데 내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으면 부처님은 얼마만큼 커고 그 부처님께

서 하시는 말씀은 천지를 진동하는 입체적인 소리인 데다가 메아리까지……

내가 아직 꿈속에 있는데 애가 나를 밀어 깨웠다. 깨어나자 나는 꿈속의 일을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는 “어머니, 예전에 잠 못 잔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잠을 잤어요? 어머니의 말투가 왜 이렇게 또렷하신가요?”라고 말했다. 13살인 딸과 10살인 아들은 서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기력이 좋아진 이것은 꿈이 아니겠지?”

두 아이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앞집으로 외숙모를 찾아갔다. 두 아이는 외숙모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를 가서 보세요. 어떻게 몸이 좋아졌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 둘이 꿈을 꾸고 있는가요?” 아이의 외숙모는 “허튼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말했다. 두 아이는 끌어당기며 외숙모를 데리고 왔다.

방에 들어가 보니 내가 온돌을 짚고 땅바닥에 서 있었는데 똑바로 서지는 못했지만 병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외숙모는 정말 놀랐다. 그렇게 여위고 또 7년 동안 마비로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에 서 있다니, 이건 얼마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가! 그녀는 놀라서 쏜살같이 도망갔다. 그녀가 뛰자 정원의 닭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날아다녀 이웃들을 놀랍게 했다.

많은 이웃이 와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방 안에서 구들 가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바깥방으로 움직여 왔다.

바로 이때 저의 남편이 돌아왔는데 집 앞에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틀림없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이웃들은 모두 “어서 당신의 미누라를 보



세요!”라고 말했다. 저의 남편은 “그것은 조만간의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웃은 “죽은 게 아니라 나았어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아이고, 나를 속여 뭘 해요?!?”라고 말했다. 그가 방안을 들여다보니 내가 바깥방에 서 있자 그는 내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걸음에 창턱으로 올라 방 안에 들어왔다.

그는 한눈에 구들 위에 있는 《전법륜》을 보고 바로 펼쳐보고는: “나는 당신이 이 책을 보고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책의 저자는 보통 저자가 아니니 당신은 이 책을 계속 보아야 하며 놓으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나는 단지 《전법륜》 중의 두 단락 글을 읽고 일어났으니 이 《전법륜》은 천서(天书)가 아닌가? 내 몸이 다 나아지자 어머니는 매우 감동하였다. 어머니는 책 속의 리홍쓰 사부님의 사진을 보고 “당신이 바로 나의 딸이 찾으려던 진짜 부처님이십니다!”라고 하며 절을 올렸다.

또 하나의 기적 혹이 저절로 떨어져

나의 왼쪽 아랫배에 혹이 있는데 손으로 밖에서 만질 수 있었다. 파룬궁을 수련해

열 나흘쯤 되었을 때, 내가 한창 재봉틀을 밟으며 아이에게 옷을 고쳐주고 있는데 아래 배가 묵직하면서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다. 막 집 밖에 나서자마자 나는 뭔가가 바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것을 꺼내 보니 찐빵 크기로 베어 보니 안쪽이 겹겹이 겹치고 딱딱했다.

계속해서 책을 읽고 연공 하였더니 병이 다 나았고 분석 능력도 있었는데 정신이 혼란하지 않았다. 한동안 남편이 바쁘기에 나는 남편을 도와서 반년 동안 수업을 대신 강의했는데 과목을 잘 가르쳤다고 교육국 지도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 일로 누군가 농담조로: “경련을 일으키던 명청한 아낙네가 수련하더니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7년 동안 마비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1996년에 운 좋게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오늘 까지 이미 21년이 지났다. 나는 몸이 건강하고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하다. 나와 남편은 서로를 존중하며 두 아이 모두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리홍쓰 사부님에 대한 나의 감시를 표현할 어떤 언어도 없으며, 나는 단지 나의 직접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사부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나와 우리 집에 천하 없는 흥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친척도 파룬따파의 위대함을 목격했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